

■ 2002년도 무대 활성화 지원 작품 ■ 사랑티켓 참가작

■ 劇團 아이스 제4회 정·기·공·연

이혼의 조건

4.23 ~ 24

오후 5시 / 7시 30분

금정문화회관 대극장

작 : 윤 대 성
연출 : 허 영 길
출연 : 호 민 주
구 민 주
신 종 섭
최 수 희
이 진 희
김 낙 평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부부이혼이 늘고 있다.

이른바 '황혼 이혼'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결혼의 굴레를 쓰기보다 혼자 독립된 생활을 하겠다."는 열망(?)이 높아 가고 있다. 외국에서는 혼자 사는 여성들이 결혼은 하지 않고 어이만 낳아 기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통적 가족제도의 붕괴조짐인가?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변화의 한 현상인가? 우리네 주변에 한 두쌍 쯤 이혼한 사례를 접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결혼은 생활의 종합체이다. 그 안에는 아이와 삶의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다. 그것은 행복의 조건으로 여겨져왔다.

그런데 왜? 작품 「이혼의 조건」은 이혼의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 부부를 그리고 있다. 사랑, 결혼, 이혼이라는 삶의 난해한 숙제를 드러낸다.

우리는 여기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붕괴가 물질 만능이 팽배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가를 음미하고, 특히 중년 부부들의 이혼이 급증하는 현 사회에서 우리네의 결혼, 이혼, 사랑의 관념을 되짚어, 삶의 의미,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찾고자 한다.

연출의 말

도마위의 남자들, Show Window속의 남자들, Unisex.....

현대사회를 이행되어 오는 과정속에서 속속 등장한 수상적은(?) 문구들이다. 남성중심주의의 전통적 사회 가치관으로 부터 반기를 든 여성해방운동이라는 말은 이미 고전이 된 듯이 사회 전반에 걸친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폭넓은 활동은 사회 곳곳에 그들의 자취와 목소리를 높여 왔으며, 더불어 가정에서의 역할론이 비중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여성으로서의 자아적, 권리적 독립성 내지는 존재론의 의미로 받아 들여질만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역작용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가정의 붕괴, 이혼의 급증, 부부간의 정신적 갈등 등, 과연 이것은 진정한 의미로서 삶의 가치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연극 「이혼의 조건」은 물질만능이 팽배한 현대의 가정이 안고있는 문제점과 서로 상반된 성격의 부부가 등장하여 함께 살아왔던 지난 세월 속에서 당한(?) 억울함을 이혼이라는 결말로 맺는다.

딸의 결혼식을 닷새 남겨 놓고 부인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다.

이혼을 함으로서 지난 세월을 모두 보상받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부인 자신은 결혼생활에

실패했음에도 딸을 은행원과 결혼시키는 것은

결국 가정의 안정은 물질이라는 전제를 느끼게 해준다.

부인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혼에 대한 구체적 이유들이,

살아왔던 세월 속에 제시되지만 부인이 남편에게 요구한 것은

경제적 안정으로 인한 가정의 안정이다.

남편의 어깨에 난 상처는 부인에게 젊음에 대한

열등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이성보다는 감정으로

이혼을 제시해 이혼에 성공한다.

이혼을 결심해서 실행에 옮기는 여자, 그러나 모든 것은 허상이다.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랑, 완전한 가정, 완전한 삶, 그러나…….

그리고 마치 우리네의 결혼생활을 거울로 들여다 보는 듯한 공감
감을 느끼게 한다.

Happy Ending이 되지 않는 이 극의 아쉬움은 어쩌면 이혼
증가율에 일조하지 않는가 하는 '관객의 오류'에 대한 조바심
도 크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다시 핵가족에서 분열하고 있다.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웅송이며 가족 전원이 가정의 현실을 피
부로 느끼고 나누었던 어제…….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값 매길 수 있단 말인가!



연출 / 허영길

Cast

이혼의 조건



미스터 한 / 김 낙 평



애라 / 이 진 희



남편 / 호 민



아내 / 구 민 주



유미 / 최 수 희



최박사 / 신 중 섭

Staff

이혼의 조건



연출 / 어영길



기획 / 서용우



무대감독 / 오준철



조연출 / 김재경



무대미술 / 서정욱



음악 / 원성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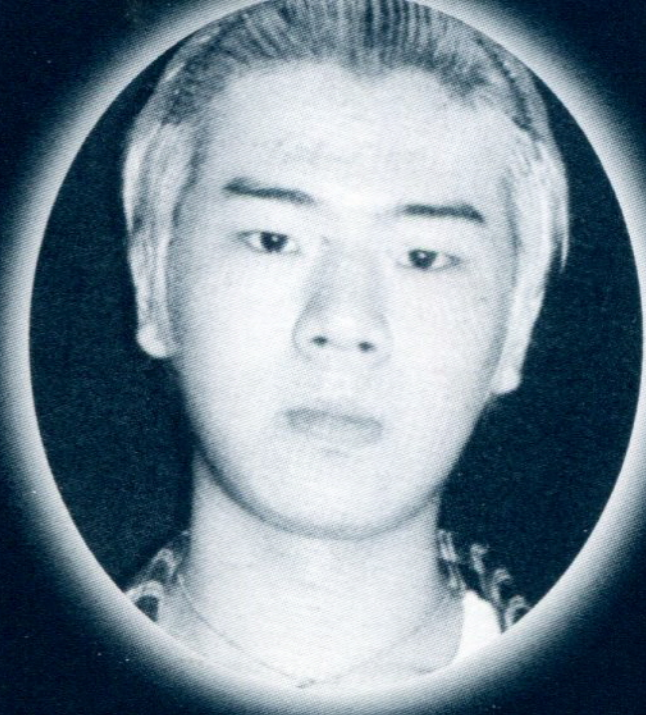
의상 / 황정옥



음향 / 윤소영



소품 / 김선미



진행 / 임영고



진행 / 이혜민

조명 / 김석웅

분장 /
HAPPY HEART
BEAUTY ACADEMY